

박여범의 소소한 일상

처음으로 눈이 마주쳤을 때

입 추가 자났다. 장맛비에 습도가 높은 무더위가 기승이다. 밤에는 열대야로 모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서울에 일이 있어 연가를 냈다. 일정에 하나를 추가했다. 40년 동안 만나지 못한 중학교 동창 이도수를 만나는 것이다.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얼굴 보고 밥 먹고 차 마시고 내려온다는 계획이다. 미리, 전화하고 약속을 잡았다.

계획된 일정은 생각보다 일찍 마무리되었다. 지하철 출입구에서 친구를 기다렸다. 81년 중학교 졸업과 함께 헤어진 친구다. 못해도 40년이란 세월이 흘러가 버렸다. 세월이 뭐 그리 중요한가? 헤쳐야 3번 출구에서 그렇게 친구를 만났다. 서로를 알아보는 것은 '누워서 떡 먹기'보다 쉬웠다. 서로의 눈빛으로 어릴 적 추억으로 생생한 기억으로, 서로 손을 마주 잡고 어깨를 두드려주며, 그렇게 40년을 온전히 담았다.

친구는 여전했다. 곱게 나이가 든 모양새에서 그늘을 찾기가 어려웠다. 나름, 고생했겠지만 얼굴을 밝고 건장했다. 중학교 졸업 시절 나의 키는 148 정도였다. 부모님은 키가 크지 않을까? 한숨으로 보내는 시간이 많았다. 반면, 친구는 키가 제법 컸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런데 친구와 나는 세월의 흐름 속에 같은 눈높이로 서로를 바라다보고 있었다.

"오늘 밤은 무조건 내가 신다. 그리고 커피도 내가 신다. 걱정하지 말고 우리 배틀리 먹어 보자."

"그래, 빌어아 누가 사든, 커피야 누가 사든 그것이 뭐 그리 중요하냐? 을 사이에, 자식 여전하네."

"자식....." 대학로로 이동했다. 서로의 인부를 물으며, 밥부터 먹었는데 의견이



박 여 범

영북중학교 · 시인 문학박사 · 문학평론가

일치했다. 시간을 보니 12시가 코앞이다. 자가용을 두고 안에서 버스로 1시간여를 달려온 친구다. 무조건 맛 있는 음식을 먹기로 했다. 역시, 서울은 서울이다. 어디를 바라보아도 사 람들로 붐빈다. 종종걸음으로 무었인가 바쁘게 움직인다. 그 가운데 친구와 내가 서 있다.

3번 출구 계단을 밑없이 웃으며 익숙한 듯 헤쳐야 계단을 걸어 올라오는 너와 처음으로 눈이 마주쳤을 때 나는 실례는 마음보다 똘치 모를 격함으로 멍하니 서 있다가 한꺼번에 밀려오는 그리움으로 눈물이 울락 울락 이질 뻘해서

40년이라는 세월이 허안 서리 나이테는 왜 그리도 많이 너의 검은 머리 주인집에 월세도 아닌 전세로 거들먹거리며 가득 채운 갈색 머리 염색약을 아낌없이 지워가며 하루하루 배를 불리니, 안티캐슬은 미안함이 되어 작은 강으로 흘러가고 아색한 듯, 속스러운 듯, 미적미적 죄 없는 허공만 바라보다가

까만 밤의 연속극처럼 따뜻한 국밥 한 그릇에 지나온 세월은 어릴 적 친구 이야기, 동네 어르신 이야기, 체녀 귀신 이야기까지가 때를 수놓는 대화 속 향기가 진한 우정이 뜨거운 태양 같이 솟아오르고 아쉬움에 옛 생각에

배가 고됐다. 세월은 우리에게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았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 했다. 터덜터덜 대학로를 거닐어 해장국밥 식당으로 들어섰다. 12시 전후, 식당은 이미 많은 손님으로 북적였다. 선좌국밥 한 그릇에 속을 풀며 소주잔을 기울이고 있는 청춘의 모습도 보였다. 젊은 애주가 그룹을 지나 우리도 자리를 잡았다. 이런저런 이야기가 화두였다. 그중 사랑한 친구들 이야기는 총격이었다. 사고와 병으로 생을 마감한 친구들 이야기부터 자녀 이야기, 고향 이야기, 학창시절 이야기, 직장 이야기, 골프 이야기, 건강 이야기를 나누며 세월을 보살피고자 했다. 가까운 대치동에서 은행 부지점장을 하는 친구와

통화도 연결해주고, 캐러멜 마키아토를 한잔 나누며 시간 가는 줄 모도 나누었다. 대학로의 한 카페, 브런치를 즐기는 서울 중산층 아줌마 부부가 시끄러웠다. 덕분에 경쾌하듯 우리의 목소리도 자연스럽게 높아만 갔다. 한번 이혼하고 다시 초, 중, 고 동창을 만나 잘 산다는 이야기부터, 아직도 충직한 친구 이야기, 돈을 많이 벌었지만, 자식이 없어 고민한다는 친구 등, 그 짧은 시간에 40년 이별을 지워 버리기에 너무나 아쉬운 시간이었다.

고속버스터미널로 움직이는 지하철에서 두 손을 맞잡고 다시 만날 그것을 기억했다. 보고 싶어도 만날 수 없었던 친구를 만나려는 것은 정말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한 하루였다. 더 많은 친구를 기억에만 머물게 하지 말고 용기를 내서 여기저기 수소문해 같이 함께해야 했다.

전주행 버스에 올랐다. 2시간여를 달린 버스 창문으로 익숙한 풍경, 눈에 익은 건물, 아파트, 상가가 펼쳐진다. 전주의 건물을 사이로 보이는 논과 밭들은 서울에서 만날 수 없는 현실적인 생활공간이다.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흠뻑이 말라졌다. 잠시 눈을 감고 잠에 취하려는 순간 '님동' 문자가 도착했다.

"빈가음이 넘치는 하루였네. 시골 친구들한테도 친구 소식도 전했네.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도 하네. 많이 않은 시간, 즐겁게 자주 만남을 갖도록 해보세. 건강 먼저 챙기고 힘 있을 때 부지런히 여행도 다녀오게 ~~~"

"당근, 당근, 나 역시 빈가웠네. 변하지 않고 건강하게 만날 수 있어 행복했네. 자주 얼굴 보여주게나. 사랑하이 친구!"

사설

전북 폭우 피해 최종 1천억원 대 이상

우리 지역의 폭우 피해가 엄청나다. 복구를 위해서는 5백억원대의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는 보도였는데 그게 성급한 추산이었다. 하룻밤 사이에 피해규모가 1천억원대 이상이라고 정정이 되었다. 전북 지역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속히 지정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저번에도 도내 각 시군마다 폭우 피해가 컸지만 이번에는 남원 지역과 순창 지역이 피해가 엄청났다. 특히 남원시 급지면 일대는 섬진강 제방이 무너져 범람하는 물이 유입되는 큰 재앙을 당했다. 현재 긴급 복구 중이지만 역부족이라 현지 주민들은 마음이 여간 실란한 게 아니다.

이번 폭우 피해는 근래 드문 대 재앙이 아닐 수 없다. 전북도는 정부로부터 특별 재난 지역으로 빨리 지정받아 피해 복구 지역을 지원해야 한다. 본보는 사실을 통해 거듭 거듭 말했거니와 섬진강 댐의 대량 방류와 섬진강 제방의 완성로 인해 남원의 급지 평야는 완전히 물바다가 됐다. 농경지는 물론이고 마을의 집들이 지붕까지 물에 잠겨버렸던 것이다. 지금 물이 빠진 현장은 폐허 그 자체이다.

전북도는 정부로부터 특별 재난 지역을 속히 지정받아 그 지원금으로 수재민들을 도와야 한다. 우리 전북 지역의 피해는 그 어느 지역보다도 처참하다. 전북도는 이번에 수재민들에게 용기의 근거를 보여주어야 한다. 때마침 여당의 당권주자들도 도내 수해 현장에서 봉사하는 가운데 전북 지원이 속히 있어야겠다고 주장하는 편이다. 전북도는 당권주자들의 발언이 한때의 정치적인 전속처에 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전북도 스스로 앞장 서서 즐기게 이쪽의 입장과 형편을 강조해야 한다는 당부이다.

도지사는 지난 폭우 때 재난대책상황실을 급히 꾸리고 재해 상황을 파악하는 가운데 신속한 복구를 말했다. 이번에는 상황이 더욱 심각한 만큼 전북도는 피해 복구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 여기 다시 강조해 당부하거나 전북도는 정부로부터 피해 규모만큼의 지원을 받아내야 한다.그러려면 특별 재난 지역 지정이 급선무이다.전북도는 속도감 있는 피해 복구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인구 유출 가속화 고민해야

전북도는 인구 감소와 관련해 이 마을 쪼아져야겠다. 도내에서 그래도 괜찮다는 군산 익산 김제 완주 등지에서 인구 유출이 심각한 수준이다. 그러나 동부권이나 남부권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현재 도민 전체의 수는 180만 8044 명이라는 보고이다. 도내에서는 월 평균 132명 꼴로 감소하고 있다. 전북도는 인구가 줄고 있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도민에게 희망을 보여주어야 했다.

전북도가 여러 방면에서 노력해 왔지만 그제 인구 보존 효과와는 무관해 보인다. 군산형 일자리만 해도 그렇다. 군산 경제를 살리겠다는 청사진을 보여줬지만 전북도는 그제 수년 후엔 성취될 일이라고 말하고 있다. 전북도는 일자리 창출에 전력투구해야 한다. 일자리 부족이 인구 감소의 첫째가는 원인이기 때문이다. 전북도는 저번에 투 트랙 전략으로 볼라구를 열었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게 아직은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 지않다. 그 때문에 다들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가려는 마음이

급하다. 전북도는 그동안 발표한 전략들이 희망의 근거가 되는지 확인해 줄 일이다. 전북도는 젊은이들의 유출을 두고 불만을 말해서는 안 된다. 기대했던 바 일자리 창출이 적으니 젊은이들이 떠났던 것이다. 전북도는 힘을 내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해결해야 할 현안이 너무 많아 염두가 나지 않았지만 그래도 팔소매를 걷어부쳐야 한다. 전북도는 자존을 말하고 재류 찾기를 선언했지만 현실은 어려운 것 투성이다. 때때마다 지적했거니와 이런 식이라면 관련한 일이 계속될 터이다. 전북도가 이루어낼 목표는 뚜렷하다. 군산형 일자리 지원을 정부로부터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받아 내야 한다. 실직자들을 위한 일자리를 속히 창출하기 위해서이다. 그게 잘 안 된다면 군산시민의 실망이 클 터이다. 전북도는 미래 비전만 멋있게 그려보여주어서는 안 된다.전북도는 지금의 거주 인구 수를 유지하기 위해 구체적인 무 엇인가를 보여주어야 했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기고문

기상특보 대처 "안전이 최우선"

올해 장마는 유례없이 길고 엄청난 양의 비를 동반했다. 이번 장마는 비구름 대가 남부권과 중부권을 오르내리면서 물 폭탄을 쏟아 붓고 있어 한 번도 전역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그야말로 국가적 차원의 재난이 아닐 수 없다. 20여 년을 소방관으로 근무하면서 주의가 부족하거나 미리 대처하지 못하여 위험에 처하는 경우를 자주

봐왔기에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고자 몇 가지 안전수칙을 당부하고자 한다. 집중호우 시에는 자주 물에 잠기는 지역, 산사태 위험지역 등의 위험한 곳은 피하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하며, 가급적 외출은 하지 않으며 TV, 라디오, 인터넷 등을 통해 기상 상황을 확인해야 한다. 개울가, 하천변, 해안가 등 침수 위



김 응 학

무진장소방서 현장대응단 소방위

험지역은 급류에 휩쓸릴 수 있으니 차량등 접근을 금지하고, 등산객은 계곡이나 비탈면에 가지 않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여 지대가 높은 곳으로 이동한다. 산사태가 우려되는 경우 산사태 취약지역 주민은 사전에 대피하거나 관계기관의 지시에 따라 특정 장소나 마을회관, 학교 등 산지로로부터 떨어진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다. 산사태는 위에서 아래로 토사가 흘러내리므로 대피시 신속히 횡 방향으로 이동한다.

Large graphic with a boat on waves and a sun/moon, containing text about '정론지' (Platform) and '전주매일' (Jeonju Maeil).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